

그림공부와 어머니의 눈물

미술대학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 종 상

1. 그림공부

내가 아주 어렸을 적, 그러니까 8·15 광복이 되고 그 이듬해 서울 후암동에 있는 삼광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해방교육 1세대로서 우리 교육을 받기 시작할 무렵의 일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워낙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데다가 덕산에 계신 고암(顧庵) 이용로 선생과 친분관계로 화가의 꿈을 키우셨던 아버지 덕분에 유치원 때부터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었다. 아버지께서는 완고하신 할아버지의 반대로 고암 선생을 따라 동경 유학 길에 오를 수 없게 되자, 청운의 뜻을 접고 본래 전공하셨던 원예학으로 복귀하시어 지방 군청의 연구기관 공무원이 되셨다.

아버지께서는 직접 과수원을 경영하셨고, 예산 읍내 발연리 120번지에 손수 설계하신 집 울타리 안에 미니 동물원을 방불하게 할 만큼의 갖가지 관상용 조류들을 사육하며 나와 함께 스케치하시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내가 아버지를 따라 곧잘 그리는 걸 대견스레 칭찬하시며 늘 “작은 늙은 화가로 키울 거야”라고 어머니에게 자주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광복 이듬해에 텅스텐 광산업을 하셨던 할아버지께서 거래하시던 서울의 명동성당 부근에 있던 적산 전구공장을 불하 받아 경영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서울 용산구 후암동으로 이사를 오게 된 나는 곧바로 삼광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고 가장 자신 있는 도화(미술)시간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었다. 그림 그리는 일이라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태어난 예산에서부터 서산으로 이사하여 지금은 정치가가 된 변웅전이랑 유치원에 다닐 때까지 아버지로부터 그림 수업을 단단히 받은 바가 있어 어린 나이에도 도화시간만은 칭찬을 들을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고대하던 도화시간이 찾아 왔을 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우리 반 담임이셨던 여자 선생님께서 내가 그린 그림에 대해 의심을 품었기 때문이었다. 광복 직후라서 인쇄술이 낙후되어 원색도판이 들어가야 하는 새나라의 도화책을 새로 발행할 엄두를 내지 못한 채로 2년이나 지나도록 일본시대 쓰던 도화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바로 그 일본시대 도화책을 1학년 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에 나눠주고 밖에 나가 임화를 그려오라는 것이 첫 도화시간의 수업내용이었다. 해방 직후 아무리 궁색하고 질서가 아직 잡히지 않았을 때라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어찌되었던 아무 짚도 모르던 어린 나는 나눠 주는 도화책을 운동장 등나무 밑, 벤치 위에 펼

쳐놓고 구도가 그럴싸한 그림을 골라 이를 앙다물고 아주 열심히 그려댔다. 도화책의 내용이 하나같이 일장기를 그린 비행기와 군함이 미, 영 연합군과 싸워 이기는 전쟁기록화 같은 그림이었다. 어려서부터 닳게 그리는 그림이라면 제법 많이 그려 보았던 터여서 남들보다 쉽게 가미가제들의 공중전을 하는 멋진(?) 그림을 거의 원본과 같게 그려 낼 수가 있었다. 그때 마침 청소를 하고 계시던 수위 아저씨가 내 그림을 등 뒤에서 지켜보시다가 “일장기를 그대로 그려 넣는 것은 옳지 않다”며 들고 있던 마당비를 거꾸로 들고 운동장 바닥에 커다랗게 태극기를 그려 보이시며 적청색과 사괘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도 일장기 위에 덧칠로 태극기를 덮쳐 그린 친구들이 많았다. 그것 말고는 학년에 걸맞지 않게 너무도 일본 도화책의 원본 그림처럼 똑같이 전투장면을 그대로 모사해 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 그림을 보신 담임선생님께서 “누가 그려 주었는지 바른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대라”며 어린 나에게 무조건 꾸중부터 하시니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급기야는 수위아저씨와 옆에 있던 친구들마저 증인으로 불러들여야 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번져버렸다.

결국 나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방과 후에 울면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그 큰 교실의 청소를 혼자 해야 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내 믿지 못하시던 담임선생님이 직원실로 불러들여 마지막으로 심판을 구한 분이 바로 도화 전담 교사로 고학년반만 맡으셨던 곱슬머리 조봉현(趙奉賢) 선생님이셨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내가 그린 그림이 1학년 학생의 수준으로 가늠하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조봉현 선생님이 내 그림을 한참 들여다 보시더니 그러나 뜻밖에도 “소질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 정도를 그려 낼 수도 있습니다”라며 내 어깨에 손을 얹어 품안에 감싸 안으시며 단호한 어조로 결론을 내려주시는 게 아닌가. 그 바람에 나는 겨우 담임선생님의 지독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또, 그 덕분에 3학년부터 들어갈 수 있는 도화반에 불려가 전문화가 스승님으로부터 특별지도를 받게 되었으니 전화위복이라고나 할까. 후에 나는 화가가 되었고 그때 선생님은 문교부 장학사와 국정교과서 편수관으로 광복 직후 한국미술교육에 크게 이바지하셨다.

아주 어려서부터 화가가 꿈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나는 시도 때도 없이 시간만 나면 그림을 그려댔다. “종상아! 넌 싫증도 안 나냐? 원종일 ‘그림공부’ 만 하게 …” 초등학교 때부터 도화지와 크레용을 손에 든 채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고 있는 나에게 참다못해 곁에 다가오시어 짐짓 조용한 말투로 그러나 호소하시듯, 나를 타이르셨던 어머니의 꾸중(?)이셨다. 식음을 전폐하고 종일 그림만 그리고 있는 아들에게 ‘그림공부’ 만 한다고 하셨던 그 때, 어머니의 그 말씀은 그림도 ‘공부’ 라는 잠재의식을 은연중에 어린 자식에게 심어 주시므로써 나를 한국 최초의 화가철학박사로까지 만들어 주신 무언의 교육이었음을 늘그막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만일에 그때 어머니께서 “하라는 공부는 않고 그림이나 그리고 있냐!”라고 옥박질하셨다면 나는 분명, 그림은 하라는 ‘공부’ 가 아니고 ‘다른 짓’ 으로 치부하고 ‘그림’ 아니면 ‘다른 짓’ 을 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공부’ 라는 개념을 매우 비좁게 생각하여 ‘공부’ 하는 척하면서 어른들

몰래 뒤에서 ‘그림’을 그렸을 터이다. 하여간, 어머니의 이 한 마디 말씀은 평생 내가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그림공부’를 하게 만든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2. 어머니의 눈물

6·25 사변이 나던 해의 일이다. 초등학교 6학년인 나는 태평양미술학교 출신의 조봉연 미술전담 선생님께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도화반 활동에 열중하면서 중학교 진학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졸업을 2개월여 남겨두고 졸지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동란까지 겹치면서 어린 형제는 편모 슬하에서 가난한 피난민 신세가 되었다. 남으로 남으로 피난민 대열에 끼어 철독길을 따라 천신만고 끝에 고향땅 예산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믿고 의지하려 했던 사교의 큰아버지께서는 인민재판에 걸려 자식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장살을 당하셨고 가족은 만신창이가 된 이후였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전 고생이라고는 모르시던 어머니께서 “내 청상의 처지로 서방질하고 도둑질 아니라면 자식들을 위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시며 광주리를 머리에 이셨고 경북중학 2학년생이던 두 살 터울의 형은 목발이 질질 끌리는 나뭇지게를 지고 먼 산 나무를 해다 팔아야만 했다.

그러나 어머니와 형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나를 몹시 측은해 하시며 자주 눈물을 감추셨고 헌 교과서를 빌려오시어 집에서 독학으로라도 ‘공부’하기를 바라셨다. 하루 종일 집구석에 틀어박혀 책만 읽고 있자니 너무나 지루하여 슬슬 ‘그림공부’가 하고 싶어졌다. 더구나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 입고 등교하는 이웃의 같은 또래 아이들이 울타리 밖을 지날 때면 부러운 생각에 몸을 숨기고 그 아이들이 골목길을 다 빠져 나갈 때까지 뒷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보며 얼마나 부러워했던지. 이토록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은 도무지 가눌 길이 없어, 그렇게도 속기 없던 나 자신을 급기야는 길거리의 엽장수로 만들기엔 충분했다. 이런 용단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이 모두가 ‘그림공부’를 하기 위한 화구를 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아들의 마음을 읽고 눈치를 채신 어머니께서는 그 알량한 광주리 장사 밀천에서 얼마간의 돈을 떼어 내 주셨다. 나는 그 돈으로 엽도가에서 엽을 받아다가 시장바닥에서 엽목판을 펼쳐 놓고 드디어 엽장수를 시작했다. 궁핍한 피난생활 속에서도 나는 늘 그림 ‘고프고’ 손이 ‘마려워서’ 어떻게 하면 하고 싶은 ‘그림공부’를 실컷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 보이는 것은 다 그림의 소재요 잡히는 것은 다 그림의 재료로만 보였었다. 내가 삼다리 읍내, 오일장이 열리는 시장 모퉁이에 있던 허름한 문방구 진열장에서 먼지가 뿌얕게 쌓인 수채화 물감과 몇 자루의 붓을 발견하고 몹시 반가워서 그날은 밤잠까지 설치기도 했었다. 내가 평소에 보아 두었던 바로 그 문방구상 앞에서 첫 날의 엽장수 개업을 시작했던 것은 오래 전부터 계산된 일이었다. 내가 보아 두었던 그 물감이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 나갈까봐 조바심이 나서 연신 등 뒤로

진열장을 확인해보면서 옛을 팔았던 것이다. 길목이 좋았던지, 이렇게 시작한 첫 장사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저녁 해가 서산에 누엿누엿 기울고 파장터에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는데, 빈 옛목판을 들고 구겨진 지폐 조각들을 침 발라 헤아리며 수 없이 망설이던 나는 용기를 내어 문방구점으로 들어갔다. 갖고 싶었던 화구를 이것저것 사고 보니 장사 밀천까지 다 털어야 했다. 순간 노기어린 어머니의 얼굴이 뇌리에 스쳤다. 지계질을 해서 어깻죽지에 피딱지가 앉은 형의 얼굴이 노하신 어머니의 얼굴 위에 겹쳐졌다. 그래도 지금 내 품안에 안고 있는 이 화구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순간 나는 비장한 결심이 생기면서 어떤 묘안이 떠올랐다. 빈 옛목판을 문방구점 주인에게 맡겨놓고 누런 회포대 봉투 안에 화구만 챙겨들은 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루 밑의 흙을 대강 파내고 감쪽같이 봉투를 묻어버린 다음 살금살금 건넌방으로 들어갔다. 냉기서린 빈 방에서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쓴 채로 벌렁 누워버렸다. 모두가 내 각본대로 연출을 해가는 것이다. 밤늦게 지쳐 돌아오신 어머니와 형 앞에 첫 장사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깡패들에게 끌려가 돈을 몽땅 털리고 몸만 이렇게 겨우 빠져 나왔노라며 능청맞게 둘러댔다. 난생 처음 이렇게 당당한 거짓말을 해대는 어린 가슴은 내심, 마구 두방망이질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눈치 채셨던지 야속하리만치 끝내 추궁하시며 “가난은 죄가 되지 않지만 거짓은 죄가 된다” 또, “먼저 사람이 되어 좋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시며 조용히 내 눈을 마주치시니,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 마루 밑에 숨겨둔 화구를 어머님 앞에 갖다 드렸다. 그리고 얼른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발이 저려오도록 이렇게 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던 어머니께서 비장한 표정으로 “회초리를 꺾어오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셨다. 그리고 성난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가너린 종아리에 핏발이 배어나올 때까지, 한 다발의 싸릿대가 다 꺾어져 없어질 때까지 마지막 회초리를 놓지 않으셨다. 철없던 나는 그런 매몰찬 어머니가 너무도 미웠다. 이럴 때 말려주시던 아버지가 생각났다. 그러나 그 아버지마저도 이 세상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 나는 북 바치는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목 놓아 울었다. 그러다가 나는 보았다. 회초리를 들고 계신 어머니의 눈에서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

어머니는 어린 자식 앞에서 눈물을 들키지 않으시려고 고개를 외면하신 채 매를 들고 계셨다. 언제부터 울고 계셨던지 이미 어머님의 눈자위는 빨강계 젖어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고 어느새 내 등 뒤로 보듬어 안는 어머니의 따듯한 손길을 느끼면서 잠이 들었다.

다음날, 어머님은 훨씬 더 좋은 화구를 먼 예산 장터까지 나가시어 한 아름 사들고 오셨다. 그리고 세 모자는 서로 엉당겨 부둥켜 안고 해가 저물도록 그렇게 울기만 하였다. 이제와 돌아보니 내가 화필을 든 지도 어언 반세기가 훨씬 넘었다. 한 사람의 화가로, 인간으로, 또 교육자로 정년을 맞을 때까지 50여 년 동안, 나는 그때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단 한시도 잊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림도 엄연한 ‘공부’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어머님의 말씀 한 마디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은 빌미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론 공부와 그림 공부

가 다르지 않은 하나이며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라고 믿고 있다. 내가 평생 붓을 들 때마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좋은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그때 말씀을 되뇌이면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숨을 거두는 그 날까지 ‘그림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영원한 미완을 향하여, 텅 빈 충만을 위해서 말이다.

지하철 탑승기(搭乘記):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고 영 근

1960년대 초 군사정부 시절, 전차 노선을 철거하고 육교와 지하도를 만들 때였다. 미래의 대도시 대중교통 수단인 총아는 선진국의 예를 보아서라도 지하철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합치된 기억이 있다. 당시 유럽과 미주에는 오래 전부터 지하철이 개통되어 도시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970년대 중반부터 지하철이 개통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8개 노선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웃 신도시와 인근 경기도 방면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시에도 지하철이 개통되어 바야흐로 지하철 시대의 생활을 누리고 있다.

내가 외국에서 지하철을 처음 타 본 것은 1976년 12월 파리에서였다. 당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 교수였던 최석규 박사(전 연세대 교수)의 안내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노선을 갈아타면서 파리의 구석구석을 다녀 보기도 하였으며 이듬해에는 베를린, 로마, 그리고 1980년대에는 런던, 도쿄 등지에서 지하철을 탑승하였다. 2001년에는 타이페이에서 새로 개통된 넓은 면적의 지하철을 이용하여 부러움을 느낀 적도 있었다. 2006년에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지하철을 타 본 경험이 있다. 100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의 공기가 깨끗했던 것을 기억한다. 부다페스트 지하철은 19세기 말에 건설되었는데 런던 다음으로 건설된 세계에서 두 번째 지하철이다. 작년 1월에는 도쿄의 지하철을 이용하여 도심 곳곳을 구경해 보기도 하였다. 해외 여행에서 지하철을 탈 때에는 우리는 언제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보아 오던 것이 이제는 현실화되어 우리나라의 지하철이 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교통수단으로서 근립하게 되었으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없지 않다.

그런데 오랫동안 사용하여 오던 ‘서울지하철공사’란 이름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서울 메트로’라는 외국어로 바뀐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지하철을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métro’, 독일에서는 ‘U-Bahn’, 미국에서는 ‘subway’, 일본에서는 ‘地下鐵’, 중국에서는 ‘地鐵’이라 부른다. 프랑스의 ‘métro’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하차’ 내지 ‘땅속길, 땅속 철길’을 의미한다.